

#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 Sex Role Orientation and the Household Work Time of Husbands and Wives in Seoul and Taejon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차성란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Assistant Prof. : Cha, Sung Ra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x role orientation on the amount of household work time by husbands and wives in Seoul and Taej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0 couples in Seoul and 142 in Taej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aejon did not differed from Seoul in sex role orientation of the couples.
2. Sex role orientation of wife was related to the amount of time that husband spent on meal preparation and cleanup, clothing care, and child care.
3. Total household work time by husbands in Taejon was affected by the sex role orientation of himself, but the couples in Seoul and the wife in Taejon was not.

### I. 서론

가사노동 전담자로서 여성의 역할부담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나 과학적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게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 가정은 물론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도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취업한 기혼여성에게

가사노동은 피할 수 없는 교대근무(second-shift)와 같다. 결국 사회변화는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남성역할이던 도구적 역할을 추가시켰으나 남성은 여성의 가정내 역할에 참여하지 않아 여성들은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퍼우먼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 가사노동을

배분하는 것에서도 부담을 느낀다. 다른 가족원에게 가사노동을 배분하더라도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Pittman, Catherine과 David (1996)는 한 역할에서의 스트레스가 다른 역할로 또는 한쪽 배우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다른쪽 배우자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며 또한 시간배분이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과중함은 여성 개인의 심리적 불만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시키게 된다. Pina와 Bengston(1995)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가 적당하지 못할 때 부인의 우울증이 증가하며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거나(권혜연, 1996),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리상태에 대해 다루며(박주희, 1993),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등(조미환, 1996) 연구의 초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영향변인 또는 가설로는 수요 및 실행가설, 상대적 자원 가설, 성역할관념 가설 등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가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고 여러 변인과 가설들이 보완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 연구의 일치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Coverman(1985)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어느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파악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미환(1996)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론적 관점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의 다차원적인 결정요인을 검증하고 각 이론적 관점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성역할이론은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역시 영향력의 정도나 관계의 방향에 있어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취업부인 남편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참여시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자녀양육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부인의 남편은 일반적인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모두에서 성역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harles와 Hopflinger(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성역할태도가 수요/반응 가능성 가설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는 개인의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적 노력이나 사회적 환경변화, 근대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교육적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면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영향력의 여부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영향기제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성역할태도의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전시의 두 지역에서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성역할태도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균형있는 가사노동분담을 위한 상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데 따른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가사노동시간량이 길어짐에 따른 시간제약과 시간갈등이며,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므로써 사회생활에서의

활동기회 제한, 중년기의 우울증, 여성의 잠재적 노동자원 매장 등이다. 그럼에도 부인들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부담은 매우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Nickols와 Metzzen(1978)은 68년과 73년을 비교했을 때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 81년 6시간 49분에서 90년도 5시간 36분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혜연(1996)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9.22시간, 휴일은 10.0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부인들이 매우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서구 가정의 남편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Shelton, 1990; Padgett, 1991; Ferree, 1991)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주당 약 14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Sanik(1990)의 연구에서는 주당 28시간, Marshall(1990)의 연구에서는 주당 평균 28.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70년대와 80년대로 오면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조미환, 1996). 이에 비해 최수선(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편들은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일에는 55%정도의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아도 전업 및 취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권혜연(1996)의 연구는 하루 평균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9.30,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1.37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6.8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사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짧게는 최수선(1995)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4시간 49분으로 나타났으며, 홍윤정의 연구(1996)는 하루 평균 1시간 34분,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평일에 1시간 54분, 휴일에 약 4시간으로, 그리고 가장 길게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24.3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비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연구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없다.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60.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9.30시간,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9시간 40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응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Marshall(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응답한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이 주당 평균 28.8시간, 남편은 주당 평균 9.5시간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부인이 응답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7.9시간, 남편이 응답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23.0시간으로 부인과 남편 모두 자신이 응답한 가사노동시간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들은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남성중심적인 가사노동영역에서나 가족원들보기와 같은 가족관련서비스 영역에서 약간의 참여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선, 1995). 조미환(1996)의 연구는 남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노동은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가사노동 수행에 따른 부담은 부인이 남편에 비해 80-90%정도의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권혜연, 1996) 부인들은 가사노동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에 비해 남편들은 단순히 부인의 가사노동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부인으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부담 뿐 아니라 가사노동을 분배하는 데 따른 가족원간의 갈등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한다.

## 2.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

### 1) 성역할태도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성역할이론은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취업과 가정을 돌보는 일(homemaking)에 대한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가사노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된다(Blair &

Lichter, 1991, Sanchez & Kane, 1996에서 재인용).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마다 부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자신의 특유한 방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특히 남성과 여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Sanchez & Kane, 1996). Thompson(1993)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역할관계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을 성의식(gender consciousness)이라 하면서 이 성의식은 "배우자가 특히 여성이 부부의 역할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것"이라 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개념은 성정체성과 비교하므로써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 성역할태도(gender ideology)는 '전통적으로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결혼 및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identify) 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성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심오한 의미(the deepest sense of what one is)(Goffman, 1977)로서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은 자기정의이며 성역할태도를 구성하는 요소(Greenstein, 1996)가 된다. 결혼은 이러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작용을 하게 되는 장을 제공하게 된다(Greenstein, 1996).

성역할태도와 관련하여 성역할 사회화는 유년기에 생성된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영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성역할태도는 현재 사회의 규범적 허용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권혜연, 1996). 즉 노동분담에 있어서 전통적 성향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Berardo, Shehan & Leslie, 1987). 따라서 후자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의 규범이 변하면 성역할분리의 유지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태도는 남녀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많은 연구(Huber & Spitze, 1983; Hochschild, 1989; Sanchez & Kane, 1996)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다. 결혼한 부부와 동거커플을 비교한 Stafford 등(1977)은 전통적 노동분업은 권력투쟁의 결과도, 이

용가능시간 차이의 결과도 아니며, 성에 의한 가사노동 과제분담을 고수하는 무의식적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수선(199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관련하여 자원가설, 성역할태도 가설, 가족발달 가설, 가사노동 요구 및 실행가능 가설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설임을 보여주었다. 권혜연(1996), Perrucci 등(1978)은 12가지 가사노동 과제에 대한 남편의 수행이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자원가설 또는 이용가능시간가설보다 사회화-성역할관념에 의해서 더욱 잘 설명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수선(1995)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영역을 세분화시켜 조사하였을 때 자원가설이나 가족발달 가설도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취업부인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취업부인 남편의 자녀양육시간, 비취업부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자녀양육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했을 때 신혼기 가정에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현대적일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내미취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어느 생활주기 단계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녀 중 어느 성의 성역할태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수선(1995), Huber와 Spitze(1983), Baxter(1992)는 남녀의 가사노동분담에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특히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고 한 반면, Sanchez와 Kane(1996)은 어떤 종류의 가사노동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문제된다고 하였다.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성역할태도만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 중 누구의 성역할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태도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기대와는 달라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 시간(홍윤정, 1996)이나 비율(권혜연, 1996)로 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력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어떤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 참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가사노동시간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미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증가시켜서라기보다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상대적 비율의 상승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3.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성역할태도 이외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된 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또는 소득차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미환(1996), 홍윤정(1996), Nickols와 Metzen(1978), Ericksen 등(1979)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ret와 Finlat(1984)의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소득차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asanti와 Bailey(1991)는 가사노동 영역별로 조사했을 때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청소 영역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이 부적 관계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수선, 1995; 권혜연, 1996)들도 있다.

교육수준이나 교육차 역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여러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수선(1995)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돌보기 시간의 경우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조미환, 1996), 부인에 비해 남편의 상대적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최수선, 1995), 남편이 가족원돌보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cksen(1979)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과의 교육차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교육차가 신혼기 가정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막내미취학기 가정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1993),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stein(1996)의 연구 역시 남편의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참여도는 감소했으며 부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노동기여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선(1995)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정(1996)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인의 취업상태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권혜연(1996), Charles와 Hopfinger(1992)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나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취업부인의 남편이 비취업부인의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좀 더 긴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취업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의 유무는 신혼기 가정에서만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연, 1996).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도 조력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가 후기일수록(최수선, 1995),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할수록(Charles & Hopflinger, 1992; Greenstein, 1996)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1993),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율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비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냈다.

자녀수나 어린자녀의 존재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선, 1995). 그러나 가족원돌보기시간만을 분리해 이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했을 때 어린 자녀의 존재여부(Charles & Hopflinger, 1992)나 자녀수(최수선, 1995; Greenstein, 1996)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린자녀의 존재(최수선, 1995; Coverman, 1985)가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없을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

성역할태도는 홍윤정(1996)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했으며 특히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문은 문항은 성역할태도의 전통-근대성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외시켰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가사노동선호도는 조성은(1991)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부인에게만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양일간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 상품구매 및 가계부기록, 자동차 수리 및 정원관리, 자녀돌보기에 관한 11개 문항에 사용한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가사노동시간 \* 6 +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 7 로 계산하였다. 조력시간은 유급의 과출부, 친정부모나 시부모, 남편을 제외한 기타 가족원으로부터 가사노동을 도움받는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부인과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연령, 자녀수,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과 남편의 직업을 조사하였으며, 소득은 부인이 취업한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을 응답받았고, 남편의 소득은 남편의 근로소득과 기타 이자소득, 집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대전시는 광역시이기는 하나 새로운 문화 자극의 정도, 근대적 가치관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서울에 비해 상대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대되는 차이가 부부의 성역할태도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97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과 대전에 각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서울의 100부, 대전의 1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t-검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역시 서울이 41.71세, 대전이 42.59세로 비슷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은 서울이 대전에 비해 다소 높으며 대전의 경우 취업주부가 41.55%로 서울의 33.0%보다 다소 높았다. 남편의 직업은 서울의 경우 전문, 관리직이 44.5%로 가장 높는데 비해 대전은 사무직, 기술직이 36.6%로 가장 높았다. 부인의 근무시간은 대전이 4.12시간인데 비해 서울이 2.95시간으로 대전거주 부인들의 근무시간이 1.17시간 더 길었다.

IV.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부인의 평균 연령은 서울시와 대전시가 각각 38.98세, 39.74세로 비슷하였으며 남편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경우 응답가능범위 12-60점의 중앙값인 36점보다 낮아 다소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경우 중앙값보다 5점 이상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서울 (N=100)				대전 (N=142)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주부연령(세)	38.98	8.47	24.00	57.00	39.74	9.77	22.00	57.00
남편연령(세)	41.71	8.53	28.00	61.00	42.59	9.88	25.00	59.00
자녀수(명)	1.69	0.96	0.00	5.00	1.74	1.04	0	5.00
막내자녀연령	취 학 전	36 (36.0%)			57 (40.1%)			
	초 등	29 (29.0%)			17 (12.0%)			
	중 고 등	21 (21.0%)			36 (25.4%)			
	대학이상	14 (14.0%)			32 (22.5%)			
주부의 교육(년)	14.08	2.60	6.00	18.00	13.18	2.77	6.00	18.00
남편의 교육(년)	15.47	2.11	9.00	18.00	14.49	2.81	6.00	18.00
주부취업	전 업 주 부	67 (67.0%)			83 (58.5%)			
	취 업 주 부	33 (33.0%)			59 (41.5%)			
남편직업	피고용기능공	6 ( 6.1%)			20 (14.1%)			
	자 영 업	12 (12.1%)			31 (21.8%)			
	사무, 기술직	37 (37.4%)			52 (36.6%)			
	전문, 관리	44 (44.5%)			39 (27.5%)			
부인의 근로소득 (만원)	42.91	77.82	0	500.00	47.78	80.85	0	450.00
남편의 근로소득 (만원)	237.06	116.33	70.00	800.00	214.49	99.55	0	700.00
기타소득 (만원)	16.67	49.16	0	300.00	30.25	86.89	0	700.00
부인평일가사시간 (분)	177.10	275.93	0	810.00	247.42	309.92	0	1009.00
남편의 근무시간 (분)	611.84	143.21	0	080.00	605.56	113.93	0	910.00
조력시간 (분)	73.70	161.02	0	960.00	85.28	170.23	0	900.00
부인의 성역할태도	33.51	8.07	13.00	54.00	34.47	7.47	19.00	54.00
남편의 성역할태도	41.53	7.01	23.00	56.00	41.91	5.67	28.00	57.00
가사노동 선호도	19.24	2.94	12.00	28.00	19.75	3.09	12.00	27.00
부인평일가사시간 (분)	535.49	255.86	70.00	140.00	560.99	282.71	30.00	1440.00
부인휴일가사시간 (분)	599.35	286.35	60.00	138.00	670.11	321.42	0.00	1590.00
남편평일가사시간 (분)	76.65	97.48	0	540.00	122.18	130.95	0.00	780.00
남편휴일가사시간 (분)	225.60	171.95	0	690.00	311.69	246.99	0.00	1320.00

경우 서울거주 부인이 8.92시간 대전이 9.35시간, 휴일의 경우 서울이 9.99시간, 대전이 11.17시간으로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서 모두 평일보다 휴일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남편의 평일가사노동시간은 서울이 1.28시간, 대전이 2.04시간이었으며 휴일의 경우 서울이 3.76시간, 대전이 5.09시간으로 권혜연(1996),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30분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특히 대전거주 남편의 휴일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대전거주 남편들은 휴일가사노동시간이 평일 가사노동시간의 2.5배에서 3배 정도에 이르고 있어 가사노동이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2. 지역별 성역할태도의 차이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가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부인과 남편 모두 지역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지역적으로 서울과 충청권으로 떨어져 있지만 지리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도시의 규모로 비교할 때에도 동일한 시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지역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

지역 (빈도)	부인	남편
서울 (100)	33.51	41.53
대전 (142)	34.47	41.91
t 값	0.95	0.46

## 3. 지역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지역에 따라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표 3). 부인의 경우 영역별 가사노동시간과 전체 가사노동시간 모두 서울과 대전 사이에 시간량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구매 및 경영, 자동차 및 정

원관리, 그리고 자녀돌보기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매 및 경영의 경우 대전에 거주하는 남편들이 서울 거주 남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및 경영은 남녀 모두 참여가능하지만 보다 여성적인 가사노동이므로 두 지역 모두에서 절대적인 소비시간량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남편이 구매 및 경영에 다소 더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남편은 서울지역 남편에 비해 자동차 및 정원관리에 하루 평균 15.55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전지역 남편은 서울지역 남편보다 자녀돌보기에 하루 평균 19.09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서울거주 남편은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63시간인데 비해 대전거주 남편은 2.49시간으로 대전거주 남편이 서울거주 남편보다 하루 평균 약 50분 정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전지역이 서울지역에 비해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전지역의 남편이 서울지역 남편에 비해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표 2)을 고려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이는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남편의 구매 및 경영, 자동차 및 정원관리, 자녀돌보기에 있어서의 시간량의 차이가 성역할태도보다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나, 부부 자신의 성역할태도 보다는 성역할태도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의 상관관계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와 같다.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세탁 및 수선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남편의 식사준비 및 뒷처리, 세탁 및 수선, 자녀돌보기와 부적인



<표 3> 지역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부 인				남 편			
	전체	서울	대전	t 값	전체	서울	대전	t 값
식사준비 및 뒷처리	185.80	194.90	179.39	1.49	13.21	12.04	14.04	0.54
집안청소	58.77	57.10	59.95	0.68	14.33	13.21	15.12	0.59
세탁 및 수선	82.39	80.23	83.91	0.65	5.80	4.27	6.88	1.02
구매 및 경영	78.76	75.31	81.19	0.89	19.52	14.07	23.37	2.64**
자동차 및 정원관리	20.02	19.31	20.53	0.30	33.44	24.31	39.86	3.35***
자녀돌보기	137.62	117.76	151.60	1.30	41.74	30.01	50.00	3.05**
전체 가사노동시간	563.37	544.61	576.58	0.93	128.05	97.93	149.26	3.52***

\*\* p<.01, \*\*\* p<.001

<표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의 상관관계

	부인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성역할태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식사준비 및 뒷처리	0.03	-0.20**	0.05	-0.11
집안청소	0.03	-0.07	-0.01	-0.07
세탁 및 수선	0.13*	-0.15*	0.14*	-0.08
구매 및 경영	0.12	0.09	0.08	0.03
자동차, 정원손질	0.08	0.04	0.02	0.03
자녀돌보기	-0.06	-0.13*	-0.09	-0.17*
전체 가사노동시간	0.02	-0.11	-0.01	-0.11

\* p <.05, \*\* p <.01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 일수록 부인의 세탁 및 수선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남편의 식사준비 및 뒷처리, 세탁 및 수선, 자녀돌보기 시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전체 가사노동시간 및 남편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식사준비 및 뒷처리나 세탁 및 수선은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으로 부인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남편은 이러한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라고 해서 부인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전체적인 시간이 짧아진대거나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남편은 식사준비나 세탁, 자녀돌보기와 같은 가사노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중 세탁 및 수선과 정적인 상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중 자녀돌보기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부인이 세탁 및 수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남편 자신은 자녀돌보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인은 세탁 및 수선시간이 길고, 남편은 자녀돌보기를 하지 않는다. 한편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은 식사준비, 세탁 및 수선, 자녀돌보기 등의 여

〈표 5〉 서울 및 대전거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서 울							대 전						
	식사 $\beta$	청소 $\beta$	세탁 $\beta$	구매 $\beta$	자동차 $\beta$	자녀 $\beta$	전체 $\beta$	식사 $\beta$	청소 $\beta$	세탁 $\beta$	구매 $\beta$	자동차 $\beta$	자녀 $\beta$	전체 $\beta$
자녀수	0.23	0.25	0.31*	-0.17	-0.04	0.49***	0.46***	0.09	-0.07	-0.07	0.02	-0.09	0.04	0.04
막내연령	-0.10	-0.08	0.02	0.28*	0.08	-0.61***	-0.38**	-0.03	-0.08	-0.11	-0.10	0.04	-0.37***	-0.35***
부인교육	0.09	0.07	0.14	-0.08	0.09	-0.07	0.02	0.03	-0.10	-0.15	-0.16	-0.05	0.11	0.02
남편교육	0.09	0.06	-0.05	0.29*	-0.06	0.08	0.13	0.04	-0.02	-0.11	0.01	-0.24	-0.21	-0.21
남편직업	-0.04	-0.04	0.08	0.04	-0.05	0.00	0.00	-0.13	0.03	0.08	0.07	0.12	0.04	0.04
부인소득	0.20	0.31	0.48**	0.52**	0.39	-0.16	0.25	-0.11	-0.04	-0.19	-0.08	0.02	0.06	-0.03
남편소득	0.01	-0.10	-0.27	-0.15	0.02	0.02	-0.08	0.02	0.09	0.11	0.12	0.03	-0.11	-0.03
부인근무	-0.31	-0.43	-0.59***	-0.70***	-0.40	-0.14	-0.56**	-0.15	-0.28*	-0.20	-0.22	-0.19	-0.32	-0.43***
남편근무	0.04	0.15	0.20**	0.12	0.20	0.04	0.16	-0.05	-0.02	-0.02	0.18*	0.19*	0.04	0.07
조력시간	-0.29*	-0.31**	-0.20*	-0.01	-0.05	0.10	-0.12	-0.01	0.05	0.16	0.14	0.23*	0.05	0.12
부인성역할	-0.02	-0.06	0.01	0.15	0.21	-0.03	0.03	-0.06	0.03	-0.07	-0.08	-0.08	0.01	-0.04
남편성역할	0.11	0.01	0.21*	0.17	-0.01	-0.14	0.02	0.01	-0.09	0.06	-0.08	-0.01	-0.04	-0.04
가사선호도	-0.03	0.11	0.03	0.18	-0.08	-0.10	-0.03	0.16	-0.03	0.24**	-0.01	0.04	0.04	0.11
F값	1.24	1.96*	3.92***	3.39***	1.00	2.87**	3.52***	1.21	1.25	3.81***	1.81	1.67	3.01**	5.23***
설명력	0.17	0.24	0.41	0.35	0.14	0.32	0.36	0.11	0.11	0.28	0.15	0.14	0.23	0.35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성중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

### 5.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

대전 및 서울에 거주하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와 같다. 분석에 앞서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  값을 산출한 결과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인의 근무시간이  $vif$  값 10이상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식에서 부인의 취업여부를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서울거주 부인의 경우, 세탁 및 수선 영역에서만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은 부부 중 누구의 성역할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거주 부인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세탁 및 수선에 사용하는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거주 부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영역이나 전체 가사노동시간 모두에서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밖에 부인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서울과 대전 모두 부인의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길어졌다. 서울거주 부인은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 영역에서 조력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일상적인 가사노동 영역에서의 노동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울거주 부인은 구매 및 경영에 사용하는 시간이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고 직장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짧아 부인이 임의적으로 사용가능한 시간이 길으며, 구매력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 및 경영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서울거주 남편의 경우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은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식사준비 및 뒷처리 영역에서는 부인

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그리고 세탁 및 수선 영역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준비 및 뒷처리와 같이 여성중심적인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것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탁 및 수선 영역에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사노동 영역별로는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거주 남편은 남편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전체적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영향변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서울거주 남편은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의 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부인의 소득이 높

을수록, 부인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집안청소를 제외한 두 영역에서 조력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보기 영역의 경우에는 서울거주 남편과 대전거주 남편 모두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긴 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리적 변인인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좀 더 균형있는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시와 대전시는 주거환경이 다르지만 그

〈표 6〉 서울 및 대전거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서울							대전						
	식사 $\beta$	청소 $\beta$	세탁 $\beta$	구매 $\beta$	자동차 $\beta$	자녀 $\beta$	전체 $\beta$	식사 $\beta$	청소 $\beta$	세탁 $\beta$	구매 $\beta$	자동차 $\beta$	자녀 $\beta$	전체 $\beta$
자녀수	-0.17	-0.37**	-0.04	-0.01	-0.01	0.48***	0.03	-0.13	0.03	0.04	0.08	0.10	0.16	0.11
막내연령	0.04	0.36*	-0.02	0.03	0.15	-0.32*	-0.02	0.09	0.02	-0.04	-0.36***	-0.05	-0.37***	-0.27**
부인교육	0.03	-0.01	-0.05	0.10	0.12	0.26	0.15	0.03	0.10	0.05	-0.10	-0.22	0.07	-0.03
남편교육	-0.02	-0.28	-0.11	-0.00	-0.15	-0.29*	-0.26	-0.03	-0.09	0.04	-0.32**	-0.05	-0.27*	-0.25*
남편직업	-0.09	0.09	-0.01	0.07	0.17	0.07	0.09	-0.08	-0.06	0.10	0.16	0.09	0.12	0.11
부인소득	0.99***	0.43*	1.06***	0.25	0.59	0.04	0.89***	-0.08	-0.09	0.01	-0.04	-0.05	0.02	-0.05
남편소득	-0.03	-0.23	0.17	-0.27	-0.15	0.01	-0.13	-0.01	0.21*	-0.11	0.01	0.08	-0.10	0.00
부인근무	-0.54***	-0.37*	-0.47**	-0.28	-0.46	-0.04	-0.58**	-0.14	-0.19	-0.12	-0.05	-0.25	-0.25	-0.29*
남편근무	0.15	-0.08	0.27**	0.07	0.08	-0.03	0.11	-0.07	0.02	0.00	0.01	0.02	0.11	0.05
조력시간	-0.27**	-0.02	-0.19*	0.02	0.03	0.17	-0.04	0.31***	0.27**	0.15	0.36***	0.44	0.08	0.41***
부인성역할	-0.27**	-0.21	-0.14	0.06	-0.02	-0.18	-0.23	-0.07	0.02	0.02	0.11	-0.08	-0.03	-0.02
남편성역할	0.19	0.00	0.23*	0.16	0.18	-0.09	0.17	-0.11	-0.16	-0.17	-0.10	-0.06	-0.16	-0.20*
가사선호도	-0.07	-0.00	-0.04	0.08	-0.11	0.07	-0.02	-0.10	-0.19*	-0.02	-0.02	-0.01	-0.07	-0.10
F값	6.77***	2.26*	7.95***	0.69	1.18	2.37**	3.36***	1.57	2.26*	0.88	3.83***	3.75***	3.12***	4.39***
설명력	0.52	0.27	0.56	0.10	0.16	0.28	0.35	0.14	0.19	0.08	0.28	0.28	0.24	0.33

\* p < .05, \*\* p < .01, \*\*\* p < .001

것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성역할태도와 같이 성의식과 관련되어 개인에게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는 태도의 경우는 쉽게 변화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서울거주 부인과 대전거주 부인은 전체 가사노동시간이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 부인에게 있어 가사노동은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의 환경조건에도 관계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인 것이다. 반면 서울거주 남편에 비해 대전거주 남편은 전체 가사노동시간이 길었으며 영역별로는 구매 및 경영, 자동차 및 정원관리, 자녀돌보기에서 대전거주 남편이 서울의 남편보다 더 긴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가사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돌보기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들이 가장 긴 시간 참여하는 가사노동 영역이다. 자동차 및 정원관리는 남성중심적인 가사노동이며 구매 및 경영은 가사노동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폐쇄성이나 구속성이 약한 가사노동이다. 한편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 등의 가사노동은 여성중심적인 노동이며, 가사노동을 싫어하게 만드는 반복성, 구속성, 폐쇄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노동으로 이러한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대전거주 남편과 서울거주 남편이 차이가 없었다. 즉 대전거주 남편들이 일부 가사노동을 서울거주 남편들보다 좀 더 긴 시간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전히 전체적인 가사노동의 관리는 부인의 몫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가사노동 영역에서의 노동시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성역할태도가 절대적인 설명력을 갖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이 보완적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

도에 따라 세탁 및 수선 영역에서만 영향을 받는데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식사준비 및 뒷처리, 세탁 및 수선, 자녀돌보기에서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성역할태도나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영역별로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식사준비 및 뒷처리, 세탁 및 수선, 자녀돌보기는 여성중심적인 가사노동 영역이며,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을 균형화하는 데 있어 여성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울거주 부인은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의 세 가사노동 영역에서 모두 조력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급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식,주생활에서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전거주 부인의 경우는 서울거주 부인과 비교할 때 조력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 세 영역 모두의 가사노동시간이 조력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거주 부인은 유급의 조력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편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불규칙하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거주 부인은 특히 구매 및 경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시간이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보아 서울거주 부인들이 특히 구매 영역의 가사노동시간을 여가적인 시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부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녀로 인한 가사노동 요구량과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외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량에 좌우된다고 보겠다.

다섯째, 서울거주 남편은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의 가사노동 영역에서 부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식사준비와 세탁 영역에서 조력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져서 세 영역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중심적인 그리고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사노동 영역에서 부인의 취업으로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남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조력시간이 길어지면 남편은 일상적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부인의 근무시간이 길어질 때 오히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경우 아예 조력자에게 상당 부분의 가사노동을 위임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여섯째,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은 자신이나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일지라도 가사노동은 당연히 부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인은 가사노동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만족한 상태일지라도 아직은 전통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인이 거스르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일곱째, 부인과 달리 남편의 경우는 서울지역과 대전지역에서 차이가 있다. 대전거주 남편은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때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서울거주 남편의 경우 전체적 가사노동시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가사노동 영역별로는 식사준비 및 뒷처리 영역과 세탁 및 수선영역에서 부인 또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지역에 따른, 설명되지 않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요소의 차이가 성역할태도를 통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결국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인과 남편이 차이나며, 남편의 경우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상황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지역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가

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대전지역이 서울지역과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으로서 성역할태도가 서울과 비교될 수 있는 읍면 이하의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 ■ 참고문헌

- 1)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2) 박주희(1993),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3)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6) Calasanti, Toni M. and Carol A. Bailey(1991),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A Socialist-Feminist Approach", *Social Problems*, v.38, n.1, pp34-53.
- 7) Charles, Maria and Francois Hopflinger(1992), "Gender, culture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 Replication of U.S. studies for the case of Switzerland",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23, n.3, pp375-387.
- 8) Coverman, Shelley(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9) Greenstein, Theodore N.(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58, August, pp. 585-595.
- 10) Heath, Julia A. and W. David Bourne(1995), "Husbands and housework: parity or parody?", *Social Science Quarterly*, March, v.76, n.1, pp195-203.
- 11) Marshall, Christina Mae, "Housework in dual-earner families: Does the division of labor make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family life", Brigham Young University Ph.D.
- 12) Pina, Darlene L. and Vern L. Bengtson(1995),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the well-being of retirement-aged wives", *The Gerontologist*, June, v.35, n.3, pp308-318.
- 13) Pittman, Joe F. and Catherine A. Solheim and David Blanchard, 1996, "Stress as a driver of the allocation of housework", v.58, n2, pp 456-469.
- 14) Sanchez, Laura and Emily W. Kane(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v.17, n.3, May, pp.358-387.